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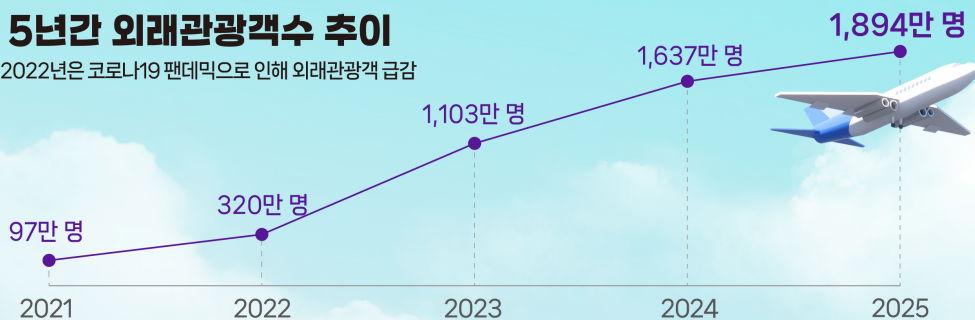
2026. 4. Vol. 44

본 뉴스레터는 부산·울산·경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의정 현안이슈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메일링서비스입니다.

관광에서 일상으로, 동네 코리아

최근 5년간 외래관광객수 추이

* 2021~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래관광객 급감



외래관광 주요 트렌드 변화



관광지 중심

→ 체험형



대도시 중심

→ 로컬·체류형



단체관광

→ 개별화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재구성

최근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K-콘텐츠 확산을 계기로 한국을 경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5년 외래관광객 수는 사상 처음으로 1,8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방문 외래관광객이 360만 명을 돌파하며, 수도권 중심의 관광 구조가 점차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대도시 중심의 단체관광에서 체험형, 로컬·체류형, 개별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집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인처럼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경험 자체를 여행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이 4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성장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울경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 <지방의정 뉴스레터>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의회 의정발언, 국회도서관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는 정책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개정이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관광기본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약칭: 문화산업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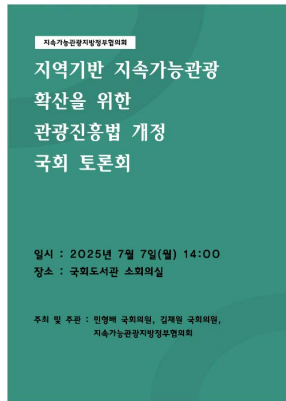
경상남도 자치법규

-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 더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추천 정책자료]



지역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국회 토론회
민형배 의원실, 2025



인바운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여행산업 육성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

- 국회관광산업포럼 관광정책세미나 :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방향
전재수의원실, 2025
- 지방시대,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한국경제인협회(FKI), 2025

[지방의정 말!말!말!]

□ **최영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국민의힘 | 사하구1 | 행정문화위원회)

“지난 해 10월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301만 9,164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 시대를 돌파했습니다.(중략)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연간 지출액 1조 5,000억 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명이라는 숫자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바로 부산 관광의 질에 대한 말씀을...첫째, 현대의 문화입니다.(중략)부산의 무뚝뚝함은 매력이기 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부산에 와야만 즐길 수 있는 것. 부산에 와서야 가치가 배가 되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중략)셋째, 공정한 가격과 골목상권입니다. 관광객이 늘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은 부산 관광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중략)다가올 부산 관광객 500만 시대, 이제는 숫자를 넘어 질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현대, 콘텐츠, 공정한 가격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부산 관광의 미래는 지속 가능해 갈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02.06.)

□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국민의힘 | 중구제1선거구 |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100선 선정 관광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거기에 울산광역시가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지리적이나 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영남알프스가 대한민국 100선 선정 관광지로 나와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울산의 여러 가지 국내 · 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면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 실적 내용을 보면 올해는 3만 1000명, 전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1만명 정도 왔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중략)관광산업에 대해서 홍보, 콘텐츠, 무슨 개발 뭐 한다고 쪽 나열만 되어 있는데 이런 소프트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2023.11.07.)

□ **우기수** 경상남도의회의원 (국민의힘 | 창녕2 | 경제환경위원회)

“경남이 단순히 방문하는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 · 생태 자원과 문화유산, 축제, 전통시장, 농촌체험 등을 묶어 여행 패키지로 재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는 광역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유치 대책입니다. 일본의 경우, 엔저 효과로 글로벌 관광객을 대거 끌어들이며 지방 도시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편리한 이동 환경,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외국인 친화 안내 시스템 등 지방정부의 일관된 관광전략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경남은 언어 안내 체계, 외국인 결제 편의, SNS 바이럴 마케팅 등을 개선해 기다리는 관광이 아니라, 찾아가는 관광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양 · 산림 · 역사 · 온천 · 생태 자원을 묶어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5.12.16.)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국회부산도서관, 「2026 국회부산도서관 시네마천국」 행사 개최

국회부산도서관(관장 정미영)은 영화의전당과 함께 4월 18일(토) 오후 2시 「2026 국회부산도서관 시네마천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영작은 《패딩턴: 페루에 가다》로, 루시 숙모를 찾아 아마존 정글로 모험을 떠나는 곰 패딩턴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로,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봄기운이 완연한 오후 도서관에서 영화를 매개로 소중한 시간을 나누며 뜻깊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관련 문의: 015-608-8022

● 국회부산도서관, 김경일 교수 초청 'AI 시대 인간다움의 가치' 특강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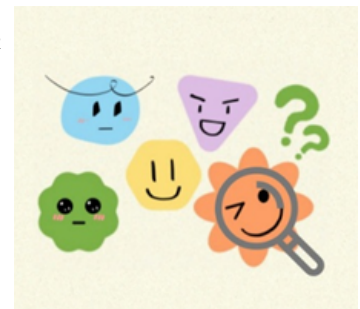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은 2026년 지식문화프로그램의 문을 여는 첫 순서로, 오는 4월 25일(토) 오후 2시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합니다. 'AI 시대, 변하지 않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공감, 관계의 본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서는 김경일 교수는 기술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내면의 지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 051-608-8102

● 국회부산도서관, 이슈엔박스 「함께 살아가는 기준: '다름'을 넘어 '우리'로」 게시

국회부산도서관은 4월 3일(금), 이슈로 펼쳐보는 책 이야기 이슈엔박스(Issue & Books) 제22호로 「함께 살아가는 기준: '다름'을 넘어 '우리'로」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호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되돌아보고, '다름'을 넘어 '우리'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상화를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관련 도서들을 소개합니다.



관련 문의: 051-608-8049



이번 지방의정 뉴스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지방의정 뉴스레터는 구독자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CLICK



국회부산도서관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051-608-8150



국회부산도서관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정보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정보 북큐레이션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지난 호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Tel. 051-608-8072 | nabl_newsletter@nanet.go.kr